

한국문학의 일본체험

김 태 준*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사상에서 문예로 |
| 2. 역사와 현실 사이 | 5. 마무리 |
| 3. 역사에서 문학으로 | |

1. 머리말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일본접촉과 한국문학’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 내게 맡겨진 과제이다. 그런데 한국문학에서 일본 혹은 일본문학은 어떤 뜻을 가지는가? 이런 물음은 우리 국문학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익숙지 않다. 새 세기에 접어들면서 바야흐로 동아시아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국제 정세나 경제 쪽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학술회의에서도 ‘동아시아’란 말이 중요한 개념,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을 실감한다. 당연히 한·중·일 세 나라를 한 묶음으로 하는 지역적 문명적 공동체가 상정되고, 학계에서도 동아시아 담론은 탈근대의 한 대안적 모색에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의 세 나라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감이 있고, 이것은 한국의 세계인식이 그만큼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임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한일 사이의 지정학적 거리나 경제적 국제적 관계와 인적 물적 교류 관계에 비하여 연구자들에게 있어 일본은 아직도 먼 나라이고, 특히 문학사의 관련에서는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동아시아 문학이라 하더라도 중국문학에 비해서 일본문학이 주목을 받는 일은 미미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본의 대중소설이나 문화의 번역과 수용에서는 상당한 세력으로 젊은 층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 또한 한·일 사이의 문화적 현실이다.

필자는 학부에서 <동양문학의 이론>이라는 전공과목과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등 두 과목의 강의를 맡고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단연 일본문학에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도 놀란 바 있다. 학생들이 일본 번역 소설이나 대중문화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경제와 문물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대학원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라타니 고진(棚谷行人)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이 고전문학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로 되어 있고, 번역본이 초판에서 3만부가 팔렸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 비교문학회를 중심으로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이 『동아시아문학사』를 쓰고 있는데, 시대사 형식을 취하지 않고 주제사 형식을 취한 것은 시대구분의 어려움 밖에도, 고전 문학사는 중국문학사에 근·현대 문학사는 일본문학사에 치우칠 우려를 불식하려는 한국 등의 주장과 관련이 없지 않다.

일본에 대한 한국 사람의 관심과 체험은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로 수동적 자세가 주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신숙주의 『海東諸國記』 이후 임진왜란의 7년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의 일본체험의 민족적 한 전형이 이룩되고, 전쟁 포로에서 표류와 사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직접 여행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海行摠載』에서 한국문학의 가장 여실한 고전적 일본 체험을 살필 수 있다. 근대사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의 역사와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사는 그대로 한국문학의 일본체험과 이어져 있고, 이러한 체험들의 문학적 형상화와 관련 연구들이 모두 적잖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는 이런 역사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한·일 문학의 비교연구 내지는 동아시아적 관련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령 일본 최고의 인기 고전 작품으로 『쥬신구라(忠臣藏)』와 한국의 대표작으로 『춘향전』의 비교가 새로운 비교연구의 가능성으로 관심을 불러일

오킨 바도 있고, 이런 보기들에서 일본문학은 우리 한국문학계에도 현안의 관심으로 다가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일 문학의 관련 연구의 현재와 몇 가지 가능성들에 대하여 <역사와 현실 사이> <역사에서 문학으로> <사상과 문예>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은 곳인 만큼 부산의 학계는 한·일 관계사에 대한 관심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고, 관련 연구도 개인과 여러 연구소에서 다수 진행되면서 한국 학계를 이 방면에서 선편하고 있어서 기대가 새롭다.

2. 역사와 현실 사이

한국에게 일본은 대개 언제나 두 나라 사이의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고, 한국 사람의 일본 체험은 대개 언제나 일본으로부터 다가오는 이런 사건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가깝게는 이른바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으로부터, 전 시대의 개항요구, 일제의 조선 침략, 통신사행 요구, 임진왜란 7년 전쟁과 중세에 끊임없이 이어진 왜구의 내침, 그리고 고려와 조선 시대로 이어진 大藏經의 요구 등등. 이것들이 한결같이 일본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 쪽의 도발적 요구와 무력적 침략이 반복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람의 일본 체험은 대개 언제나 일본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한·일 사이의 관계, 한국 사람의 일본 체험의 보기는 특히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가장 전형적이고 현실적인 보기라 할 만하다. 특히 문제가 된 '새역사교과서' 사건은 허구의 任那日本府說로부터 왜구,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강점, 아시아 태평양전쟁 등을 미화하여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과정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137개 항목 밖에도,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로부터도 엄중한 항의에 부딪히고 있는 민감한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더욱 거짓된 교과

서로 오랫동안 자국뿐 아니라 식민지의 2세 국민을 교육해 온 역사가 감추어져 왔으며, 이번의 사건은 이런 일본 교과서왜곡의 역사의 반복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제 때 14년 간이나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 대학의 교수를 지낸 바 있는 일본의 국문학자 高木市之助는 『尋常小學 國語讀本』이란 책 속에서 일제 시대에 일본의 이 국정 국어독본이 얼마나 거짓되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여 참회하고 있다.¹⁾ 여기서는 특히 이 교과서에 실린 「朝鮮에서(朝鮮から)」라는 교과가 조선에 가 보지도 않고 식민지 조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썼던가를 참회하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교과서조사회」²⁾라는 감독 기관의 관여 아래서 일본의 교과서가 어떤 사정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³⁾ 여기서 高木이라는 일본 국문학의 한 대가는 죽음의 병상에서 유언처럼 이 교과서의 문제를 참회하고 있지만 이 점은 잠시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생각되는 다시 두 가지의 일본의 정치적 사과 사건을 보기로 들어 보기로 하자. 그 하나가 1945년 8월에 행한 일본昭和 왕의 항복문서의 보기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 왕이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자리에서 말한 바 “痛惜의 念”이라는 말의 허구성이다.

먼저 昭和왕의 이른 바 「終戰의 詔勅」이라는 것을 보면 “帝國(일본)과 함께 시종 東亞의 해방에 협력한 제 맹방(독일 등)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하고, 스스로 끝내는 전쟁의 상대를 미국과 영국에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이 항복문서는 “타국의 주권에 반하고 영토를 침략할 의사가 원래 없었다”고 강변하고, 식

-
- 1) 高木市之助, 『尋常小學 國語讀本』, 中央公論社, 1976. 이 책은 저자가 젊어서 2년간 일한 바 있는 문부성의 교과서 편찬 사업을 회고하며, 임종의 병상에서 「懺悔錄」이란 제목으로 구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본의 군부를 포함한 정치계와 일본의 관료주의가 교과서 편찬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던가를 처음으로 밝혀주고 있다.
 - 2) 이 「교과서조사회」는 요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결성(1996, 12)을 직간접으로 후원하고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집권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회원 105명)를 상기시키는 바 없지 않다. 이들은 1993년 8월 이래 관련 사학자들을 불러 20여 차례의 세미나를 열고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이라는 책을 내고, 여기서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미화했다(鄭在貞,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그 실태와 파장」 참조).
 - 3) 高木市之助, 앞의 책, 76~86쪽. 이 책의 구술 채록자인 廣島대학 교수 深荻和男의 발문 참조.

민지화한 나라에 대한 사과 같은 말은 물론 한마디도 없다.⁴⁾ 일본제국의 패전과 무조건 항복을 ‘고지’하는 이 「중전조칙」 속에는 ‘패전’이라는 말도 없고 ‘항복’이라는 말도 없었다.⁵⁾ ‘무조건항복’으로 대전환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 결정을 공표할 때에는 확실한 대목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하물며 사과 같은 것은 더구나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식민지 침략사건에 대한 일본의 사과로는 일본에 국민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일왕 아키히토가 했다는 말이 “痛惜의 念”인데, 이것을 두 나라 신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과의 표현이라고 보도했고 또 그렇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통렬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이 사과의 뜻이 아니고 ‘몹시 애석하다’는 유감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뜻을 가진 말일뿐이라는 주장이다.

곧 중국의 『文選』에 나오는 曹丕의 「오질에게 주는 글(與吳質書)」 가운데 “美志不遂 良可痛惜”이란 구절이 처음 보이고,⁶⁾ 또 『三國史記』에서는 백제 16대 辰斯王이 서기 392년에 고구려 好太王에게 백제 복변의 10여 개 성과 關彌城을 이어서 빼앗기고 죽자, 다음 17대 阿莘王은 眞武를 대장으로 삼으며 관미성 등을 빼앗긴 사실에 “통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칙서를 내렸다고 했다.⁷⁾ 여기서 일본의 황국사관은 392년부터의 이 백제의 辰斯王의 역사를 『日本書紀』 오진(應神) 3년 조에서 『三國史記』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당시(4세기)에 존재했을 까닭이 없는 야마토 조정[大和朝廷]이란 것이 조선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두었다는 역사왜곡의 바탕을 삼았다.⁸⁾ 여기에 쓰인 ‘통석’이

4) 『朝日新聞』, 1945년 8월 15일 기사. 渡辺直紀, 「発見される‘傳統’とそのレトリックについて-日本と韓國の事例を中心として」, 『中國 南開大・日本 武蔵大 合同研究會 발표 논문집』, 南開大, 2001, 9에서 재인용하여 번역함.

5) 이런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W. M. Ball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East Asia』)이고, 이 사실은 일본의 ‘쇼오와’가 가지는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藤田省三 저, 이홍락 역,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창작과비평사, 149~50쪽).

6) 『文選』에 나오는 조비의 편지글에서 이 말의 뜻은 곧 오질(吳質)에게 덕연(德璉)이란 사람의 문재(文才)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처럼의 아름다운 뜻을 펴보지 못함이 참으로 애석함을 금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7)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3 阿莘王.

8) 『日本書紀』 應神 3年條 참조. 이에 대해서는 정경모(『황국사관에 비추어 본 “통석의 역”』, 『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한겨레신문사, 2001)가 거듭 논한 바 있다.

란 말에는 모두 자신의 과오를 사과한다는 뜻이 있을 리가 없고, 이런 말의 역사성을 모른 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로 인정한 한국의 외교 문화는 다시 교과서 왜곡 사건에 맞닥뜨려야 했으며 학계 또한 학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여기서 일본이 이처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에 인색할 뿐만이 아니라 사죄와 망언이 쌍을 이루는 입장으로 일관하게 된 배후에는 ‘敗戰’을 ‘終戰’이라 바꿔 부르는 전후 일본의 자기기만이 있다.⁹⁾ 실제로 村山 내각(1994년)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이 사죄를 기본으로 삼은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망언이 되풀이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사상가 丸山眞實이 말한 바 ‘무책임의 체계’와 관련하여 이해할 일이다. 곧 일본이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최고의 책임자가 면책되고 사죄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책임은 국제법상의 관점에서 생겨난 개념이며,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는 다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전쟁에 대한 무책임의 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사죄를 표해도 그것은 사죄일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천왕이 그대로 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여기서 화제를 다시 高木市之助의 참회록으로 돌아가 보자면, 뜻밖에도 여기서 영문학자이자 평론가였던 崔載瑞의 일본체험과 그의 민족주의적 고뇌에 접하게 된다. 여기 잠시 이 책에 인용된 高木의 자서전적 회고록의 한 대목을 이끌어 보기로 한다.

내가 朝鮮에 건너가서 강하게 民族이란 것을 의식하게 된 것은 그대로 이 민족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기보다도 관심이었다. 이때 마침 椎葉紕民이란 사람이 京城에 있었는데, 그는 크리스찬으로 총독부와는 거리가 먼 미션 관계의 학교의 선생이 되어 조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완전히 超民族的의이어서, 우리처럼 경성제국대학 교수라는 신분으로 조선 민족에 동정하는 것과는 달리 한층 순수했다.……조선인 학생 가운데에도 아주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우수한 학생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9) 加藤典洋 저, 서은혜 역, 『한국어판 서문』, 『사죄와 망언 사이에서』, 이라 창작과비평사, 1998. 이런 이름 바꿔 부르기, 전쟁과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전후적 ‘뒤돌림’은 전쟁에 대한 이름짓기에서도 나타나는데,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0) 柄谷行人 저, 송태욱 역, 『윤리 21』, 사회평론, 2001, 150쪽.

이런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마침 우리들이 의식해 온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경험의 한 보기로 崔載瑞라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佐藤이란 교수가 아주 사랑했고 졸업 뒤에는 전임강사가 되었는데, 내 방에도 자주 놀러 와서 학생시대에는 친일파로 몰려 조선인 학생으로부터 매를 맞기까지 했다. 그런 崔君이 어느 정월 휴가 때 새벽녘에 맥주를 두어 병 흔들며 처참한 모습으로 내 처소로 찾아와서는, "선생들이 아무리 잘난 체해도 우리들 조선사람의 혼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라고 소리치고는 다시 비틀거리며 나가버렸다.¹¹⁾

高木은 이어서 자신은 이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14년 간 조선에서 계속 의식해 온 민족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학생시대부터 배워 익혔던 자멘호프의 에스페란토의 세계정신을 이 조선인 학생과의 민족의식의 교류를 통해서 산 체험으로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민족 문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아니고, 인타내셔널리즘에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에 나와 보지도 않고 거짓말로 교과서를 썼던 문장의 진짜 잘못은 다른 '민족'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익이 되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식민주의가 한 민족의 '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 친일 행적으로 얼룩진 한 조선 문학인의 고뇌의 일본체험을 참회의 회고를 통해서 교과서 왜곡의 역사로 고발하고 있다.

3. 역사에서 문학으로

새해로 임진왜란 410주년을 맞는다. 임진왜란이란 역사 사건은 그 자체로서 한국문학의 아주 처절한 일본체험이며, 이 주제는 필자로서도 스스로의 공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¹²⁾ 강항의 「涉亂事跡」(『看羊錄』)에 보이는 바 왜적에

11) 高木市之助, 『國文學五十年』, 岩波書店, 1967. 『尋常小學 國語讀本』에 다시 인용.

12) 필자는 스스로의 일본에 머물렀던 체험을 임진란의 문화사로 초한 바 있었고 (출저, 『壬辰亂과 朝鮮文化의 東漸』, 한국연구원, 1977), 임란 400주년을 맞으면서 황폐강·조동일 교수들과 공동연구로 『임진왜란과 한국문학』(민음사, 대우학술총서, 1992)을 낸 바 있다.

포로되어 두 번씩이나 물에 빠져서도 죽지 못하고 적국에 끌려 다닌 4년의 전쟁 체험은 물론, 쇄환사들의 기록에 보이는 포로된 부녀자들의 눈물어린 언문 편지 등이 모두 한국문학의 중요한 일본 체험의 편린들이다. 임진란뿐이 아니고 이 역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조선에 거듭 요구해서 이루어진 12번에 걸친 조선통신사절은 한국문학의 일본 체험을 말하는데 뺄 수 없는 연구 과제이다. 조선이 매년 두 차례 이상씩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던 연행제도에 비하면, 2백 수십 년 사이에 12차례라는 통신사행은 숫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도가 꾸며서 거짓 國書로 이루어진 3차례의 사절 시비에서부터 임진란에 끌려 간 포로의 쇄환 등 전쟁의 처리 문제며, 나름의 문화교류라는 점 등에서 이것은 한·일 간의 문학 체험의 대표적 사례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12번의 사행 가운데서도 한·일 문사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제 7차(1682년) 壬戌 사행과 제 8차(1711년) 辛卯 사행, 그리고 제 9차(1719년) 己亥 사행 등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이 제 8차 사행이었다.¹³⁾ 그것은 특히 이때 일본 막부의 실력자이며 당대 최고의 문인 학자인 新井白石이 교류에 참여하여 모두 7차례나 사관을 방문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도의 문인 외교관 雨森芳洲가 왕복 수행한 데서도 두드러진다. 더구나 江戸의 유명 문인 학자 7명이 두 차례나 사관을 찾아와 교류 唱和했고 이들 시문을 엮은 『七家唱和集』이 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들의 한시문의 창화와 교류에 대해서는 이혜순 교수의 자세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바 ‘三韓朝貢說’ 등을 내세우는 일본의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자국주의 경향은 18세기 후반의 통신사행의 조선 문사들이 겪게 된 일본 체험의 심각한 징조들이었다. 일본에 대해서 교린을 표방하면서도 유교적 교양과 한시의 창화로 확실한 우위를 자신해 온 조선의 문사들은 이때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부딪치고, 자신들의 무지로 전혀 대답할 수 없는 관심 분야와 학문의 세계에 맞닥뜨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보기로 18세기 초엽 신묘사행(1711년)의 정사였던 趙泰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이 사절의 일본 체험을 ‘江關筆談’이란 기록으로 남긴 바 있다. 이 기록은 일본 德川장군의 정치 외교 고문(1709-16)이 된 新井白石(1657-1725)과 11월 5일 하룻 동안의 필담을 적은 열 서너 쪽에 지나지 않

13) 李慧淳,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127쪽.

는 적은 분량이다. 내용은 담배를 권하는 일상적 인사에서부터 서로의 복식제도와 예의제도며, 중국 고서의 보관과 琉球와의 왕래에서 마테오 리치(利瑪竇)에 이르고 있다.¹⁴⁾ 사행에서 國書의 서식이 잘못된 문제로 죄를 받고 따로 사행 일기를 남기지 않은 조태역이 이 11월 5일 하루의 필담을 정리해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데 부사인 임수간의 『동사일록』에 실린 일본의 머리말을 보면, 이때 조선 사행과 新井白石 사이에 외교적 갈등과 긴장감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白石은 조선사행이 도착하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기의 『白石詩草』를 대마도의 雨森芳洲에게 보내놓고, 그래서 서로 만나기에 앞서 정사 조태역을 비롯한 조선 삼사신의 서문을 받고 文名을 떨친 바 있었다. 이런 백석이 江戶에 든 뒤로는 10월 20일부터 보름 동안 조선 삼사에게 ‘不及對面’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한편으로 조선통신사행의 접대예절을 대폭 간소화해서 예의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일본의白石 연구가는白石의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 “조선 사절에 대한 문화상의 一擊”이라고 한 바 있다.¹⁵⁾

이때白石은 일본의 외교의 원칙으로 “和平·對等·簡素”를 표방했고, 쇄국 일본의 유일한 교린국으로 조선 사행에 대하여 “不及對面”의 모욕감을 감수하면서 접대의 간소화를 단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름 동안의 “불급대면” 뒤에 조태역은白石과 마주 앉아 이 필담을 나누었고, 이날의 필담의 중요 화제는 서양의 지리와 만국지도 이야기로白石이 주도했다.白石은 대서양의 구라과 諸國-이탈리아·화란 등-과 唐山(琉球의 수도) 등 여러 나라 사람을 직접 본 자신이 다행한 사람이라는 자랑으로 화제를 이끌었다. 이야말로 당연히 자랑할 만한 화제이며,白石이야말로 다행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실제로 일본은 벌써 1600년부터 화란과 통교하고 있었고, 백석은 1708년에 일본에 온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 씨도치(Giobanni Battista Sidotti)를 1709년 11월 22일부터 4차례 몸소 심문한 바 있는 사람이었다. 벌써 조태역의 사행이 일본에 오기 2년 전의 일이며, 백석은 이를 토대로 1715년에는 방대한 분량의 『西洋紀聞』을 완성하고 있다. 이 18세기 초에 이렇게 여러 서양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또 방대한

14) 「江關筆談」은 두 개의 이본이 전한다. 하나는 조태역의 이름과 함께 『新井白石 余集』에 전하고, 다른 하나는 부사였던 任守幹의 일기인 『東槎日記』 坤篇 앞머리에 실려 전한다.

15) 宮崎道生, 『新井白石の時代と世界』, 吉川弘文館, 1975, 197쪽.

서양 소개서를 낸 白石은 아마도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제일가는 서양학자였을 것이고, 이런 서양 전문 지식 앞에 조선 정사 조태억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부사인 임수간이 대신해서 초점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대서양은 서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지만, 구라과·이태리·화란 등 여러 나라는 어느 곳에 있는 나라들인가?”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이 白石은 되묻고 있다. “키국에는 萬國全圖가 없는가?” 어찌 조선에 만국전도가 없었을까마는, 사신들은 만국지도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뜻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종사관 南岡 李邦彦이 나서서 고본 지도가 있는데 나라 이름들이 써 있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공허한 대응이었다. 白石은 서양이란 곳이 天竺에서도 수 천리나 되는데, 이른바 대서양과 소서양이 있다고 하고, 자기 집에 지도 한 장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야말로 “문화상의 일격”이라 할만하다. 백석의 『西洋紀聞』에 따르면 白石은 씨도치를 심문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주로 서양 여러 나라의 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또 둘째 날의 심문 중에는 <萬國圖>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 블라우(Joan Blaeu, ?-1680)의 <東西兩半球圖>였다고 하며,¹⁶⁾ 白石이 집에 가지고 있다는 만국도는 본국의 俗字로 된 것이라 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도 이야기의 無知로 당황하고 머쓱해진 조선 사신이 한시 창화를 제안하는 말이 없지도 않았지만, 白石이 또한 은근히 사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사이에 한시를 창화하던 중화주의의 위기가 예고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만하다.¹⁷⁾ 조태억은 新井白石 밖의 江戸의 다른 일본 문사들과 한시 창화의 기회를 얻었고, 이때의 창수시와 필담을 수록한 『鷄林唱和集』을 남긴 바 있다.¹⁸⁾

그러나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때 이들의 창수와 필담에서 조선의 金剛山과 일본의 富士山의 우열 논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¹⁹⁾ 물론 조선 사신들이 우리의 백두산보다 천 미터나 더 높고 여름에도 태초의 만년설이 덮여 있

16) 宮崎道生, 앞의 책, 205쪽.

17) 졸고, 「동아시아 문학의 자국주의와 중화주의의 위기」, 『日本學』 제6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87. 『한국문학의 동아시아적 시각 2』(집문당, 2000)에 재수록.

18) 『鷄林唱和集』, 日本 京師書坊 松栢堂 奎文館, 1711.

19) 이혜순, 「18세기 한일 문사의 금강산-부사산 우열 논쟁과 그 의미」, 앞의 책, 260~280쪽.

는 부사산을 처음 보면서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이에 감탄하며 시를 지어 노래한 것은 인조 14년(1636)에 있었던 제 4차 통신사행의 부사 金世濂이 있었고, 인조 21년(1643) 제5차 통신사의 부사가 되었던 趙綱의 <부사산시>에서는 이에 맞먹을 수 있는 금강산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사산과 금강산의 우열 논쟁은 그 다음 번 사절인 효종 6년(1655)의 을미사행 때에 가장 심각했는데, 이때 종사관이었던 南龍翼이 두 산을 상세히 비교하면서 부사산을 비판하고 금강산의 우수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사산-금강산의 우열 논쟁은 1711년의 조태억 등의 신포사행 때에 가장 치열했으며 마지막으로 江戶까지 여행했던 영조 39년(1763)의 계미사행 때까지 이어졌으니,²⁰⁾ 이야말로 조선 통신사들의 일본체험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 주는 문학적 문화적 사건이었다고 할만하다.

특히 주목할 바는 이러한 부사산-금강산 논쟁의 일본체험과 조선조 후기 문학과 예술에서 똑같이 나타난 금강산 주제의 부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혜순 교수가 벌써 자세한 연구를 이바지한 바 있으며, 금강산의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 實景에 관심을 쏟아 그린 오윤경·김세령·남용익·조태억·조정 등 역대 통신사들의 금강산 문학에 주목한 바 있다.²¹⁾ 이교수는 이 글에서 금강산-부사산 논쟁의 문화사적 의의를 정리하면서, 이 일본 체험 이후의 금강산 문학은 물론 이후의 회화에서 진경산수화의 유행과도 상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를 <叢訓寺圖>를 그린 崔北의 경우 등을 보기로 들어 논한 바 있다. 칠칠 최북은 1748년 무진 사행 때 화원 명단에는 올라 있지 않으나, 화원으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금강산-부사산 논쟁의 치열한 대결의 당사자였던 남용익(당시 28살)이나 조태억(당시 37살) 등은 젊은 나이에 사신이 되었던 체험을 통해서 금강산의 실경을 체험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고, 국토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서 많은 금강산시, 국토시들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국토에 대한 자각은 18세기 후반 연행사절들의 중국 체험을 통해서도 실험파들에게 이어졌다. 이것은 아마도 최근 일

20) 12차 통신사(辛未, 1811년)는 '易地交聘'이라 하여 사행 목적지가 대마도로 한정되고, 종사관이 제외되었다.

21) 이혜순, 앞의 책, 274~279쪽.

이 년 사이에 70만의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면서 금강산이 남북 화합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국토라는 통일의 체험을 가지게 하는 사건에 비길 수도 있을 것이다.

화제를 다시 신묘사행으로 돌려보면 한·일 문사 사이에서는 새로운 학문적 관심사로서 세계지리나 금강산-부자산 우열논쟁 밖에도, 마테오 리치의 천주설이나 「交友論」, 한·일 역사논쟁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주목하게 된다. 특히 한·일 역사논쟁 또한 일본 문사들이 들고 나온 새로운 도전으로, 이른바 삼한이 일본에 조공했다는 「三韓朝貢說」은 이때 벌써 본격적이었다. 『鷄林唱和集』에 따르면 遼州의 正數라는 자는 조선의 제술관 李磻(東郭)에게 말하기를, “귀국이 일본과 더불어 통신한 일이 또한 2백년이지만, 삼한으로부터 일본에 조공한 일이 史書에 모두 상세하다”는 설을 필담으로 들고 나와 자국 역사의 우월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²²⁾ 이것은 특히 일본의 학계가 이른바 國學派의 등장과 함께 국수적 자국주의 경향에 흐르면서, 新井白石이 주도한 조선 통신사 접대 간소화 방침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白石이 이 신묘사행 때 정한 「朝鮮聘禮事」 등의 통신사 접대 관련 서류를 보면, 수백 쪽에 이르는 문건 가운데 이른바 “神功皇后 매 신라·백제·임라 등 여섯 나라와 卓淳加羅 등이 모두 일본의 封爵을 얻었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²³⁾ 또 「朝鮮聘使後識」에서는 임진왜란 뒤에 조선 사신은 ‘武事’에서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文事’로써 일본과 長處를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더구나 丁巳使行(1617년) 때의 國書 논란처럼 文事로 다툰 바와 같은 경우를 모두 ‘不恭’의 보기라 하고, 일본으로서도 조선 사신을 중국 사신의 경우처럼 ‘勅使’라 한 것은 ‘無學의 誤’라 하여 비판했다.²⁴⁾ 백석이 사신 교환을 和好的 뜻이라 하면서 접대를 간소화해서 이에 대처한다고 한 것은 이런 ‘無學의 誤’에 대한 나름대로 학문적 대응이란 논리가 된다. 조태억 등 신묘사행 때의 일본 문사들의 역사 논

22) “貴國與日本通信之事，又二百年，自三韓朝貢日本之事，皆詳于史書。” 『鷄林唱和集』 권 12.

23) 新井白石, 「朝鮮國信書の式の事」, 『新井白石全集』 제4권, 東京活版株式會社, 1906. 673쪽. 여기서는 특히 조선의 國書에 일본의 將軍을 大君이라 하는 것은 조선의 왕자의 호칭과 같은 것으로 일본의 수치이며, 일본에는 천황이 있으므로 장군을 왕으로 써야 한다는 문제를 길게 논하고 있다.

24) 新井白石, 「朝鮮聘使後議」, 『新井白石全集』 제4권, 679~680쪽.

쟁은 이런 白石의 논리 선상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전혀 반박하지 못했던 李覆 등 조선 사신들의 대처 방식은 그야말로 '無學의 誤'라고 할만한 일이다.

이런 역사학적 도전은 正數와 甘白이란 이의 <素盞鳴尊(스사노오노 미코토)의 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곧 甘白은 神代에 素盞鳴尊이라는 자가 신라에 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조선에도 전하는가 물었고, 正數는 좀더 구체적으로 “神代에 素盞鳴尊이 그 아들 五十猛神을 거느리고 신라에 이르러 廻庭樂이란 음악을 만들었는데 귀국에서 지금도 이 음악을 연주하는가”라고 물었다. 이것은 『日本書紀』(720)에 실린 이야기로 당초 하늘에서 쫓겨난 素盞鳴尊이 신라국에 내려와 曾尸茂梨에서 살다가, ‘이 땅은 내가 살고자 아니한다’ 하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일본의 개척적 영웅신화이다.²⁵⁾ ‘無狀한’ 소행 때문에 天界(高天原)에서 쫓겨난 반역적 존재인 素盞鳴尊이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갔다고 해서 일본신화 속에 처음으로 ‘韓·日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영웅’으로 바라본 것이다. 素盞鳴尊은 일본 出雲國 簸川 상류의 鳥上峯에 이르러 사람을 해치는 여덟 꼬리의 大蛇를 쳐서 그 꼬리에서 神劍을 얻었다 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아들이 가지고 왔다는 나무를 韓土에는 심지 않고 일본에 가지고 가 두루 심어서 靑山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를 보면 이 신화는 素盞鳴尊이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흘러간 문화의 이동 경로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가지고 온 나무를 한토에 하나도 심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 건너갔다는 등의 적대적 신화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신화를 소개하여 三韓朝貢說 등을 역사사실로 주장하는 도전에 대하여 이런 등 조선 사신은 ‘無學’을 들어내었을 뿐 전척 역사 논리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왜곡을 묵인했다. 이런 역사 논쟁은 1763년 계미사행 등 뒷시대에도 집요하게 이어졌는데, 元重擧와 같은 실학계의 인물들까지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만큼 이쪽은 無學을 드러냈다.

25) 『日本書紀』 권 1 「神代 上」, 一書 4. 황폐강, 『日本神話의 研究』, 지식산업사, 1996, 49-52쪽 외.

4. 사상에서 문예로

화제를 계미사행으로 옮겨 보면, 이때에는 문사로 南玉·成大中·元重舉·金仁謙 등이 참여하여 일기 등의 기록을 남기고, 또한 한·일 문사의 교류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이때 문사들의 필담에서는 역사 논쟁보다 특히 사상사 논쟁이 두드러진 것과 함께, 앞 시대와 달리 조선 학문의 중심에 있었던 주자학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사 논쟁의 중심에 新井白石이 있었다면, 이 사상 논쟁에서는 일본 학문의 대가인 荻生徂徠(1666-1728)가 중심에 있었다. 여기서 조선 문인들은 적어도 정통 주자학에 대한 도전과 徂徠學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 일본 체험에 맞닥뜨리고 있었다. 이때 부사의 서기였던 원중거의 경우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본 체험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스스로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異學에 대한 공격이었고, 이때 가장 심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 荻生徂徠였기 때문이다. 荻生徂徠는 江戸에서 사숙을 열어 유학을 강의하면서, 문예의 양식상의 고전주의를 유교 해석에까지 확대하여 독특한 문헌학의 방법을 확립한 사람이었다.²⁶⁾ 新井白石이 정부의 정책 입안자로 활동하던 거의 같은 시기에 그는 白石을 미워하면서, 한문을 그대로 내려 읽는 譯學과 함께 古文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古文辭學’을 확립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 태어나서 천년 전의 옛 일을 오늘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견문을 넓히고 사실에 통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학문은 당연히 역사에서 끝난다”고 해서 역사를 존중했다. 결국 荻生徂徠는 철저하게 宋學의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해체하고, 고대 유교 곧 ‘先王의 道’를 절대화하는 정치철학을 창도한 것이다. 이런 荻生徂徠가 일본의 ‘海東夫子’로 숭앙받고 그 제자들이 조선 사신들과 창화하기는 벌써 18세기 초의 신묘사행(8차)에서부터었지만, 이 계미사행의 원중거 등의 체험은 홍대용 등 동시대의 실학과 학자들의 일본 이해나 사상적 관용성과 비교하여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荻生徂徠의 제자들이 스승의 학문을 선양하고 新井白石과 비교하면서 특히 白石을 가리켜 오직 詩로써만 평가하여 스승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10차인 무진사행(1748) 때 제술관이었던 朴敬行과 長門州

26) 吉川幸次郎, 『徂徠學案』, 『日本思想大系-荻生徂徠』, 岩波書店, 1973.

荻府의 記室인 齋山(小田村望之)의 대화에서 齋山은 “일본 문학이 40년 전에 徂徠선생이 나와서 復古의 학으로 나라 안에 독보적”이고, “따르는 자가 구름과 같으며 모두가 경학과 문장으로 깊은 경지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齋山은 이어서 “白石은 오직 시로써 이름을 냈을 뿐”이라고 평가하면서²⁷⁾ 스승인 徂徠의 경우는 ‘復古의 學’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본문학 융성의 공을 스승에게 돌리는 것은 평가의 기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白石과 徂徠는 17세기 후반으로부터 18세기 초엽이라는 동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일본을 대표했던 두 지성으로, 두 사람은 참으로 성격이 다른 문인 학자였다. 徂徠의 반주자학적 고문사학에 대하여 白石은 비록 유학의 이론적 저작은 거의 없었으나 송학의 틀을 계속 존중했다. 더불어 일본 역사와 국어학과 인문지리 및 비교문화론 등에서 폭이 넓었다. 徂徠는 한문으로 쓴 산문으로 획기적이었던데 반해서, 白石은 일본어 산문으로 획기적인 문인 학자였다. 한 문학사가는 徂徠가 오히려 시인의 면모가 있고, 白石이 타고난 산문가였다고 평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일본의 대표적 지성으로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아시아적 넓이의 문인 학자였다는 점이고, 조선 학계에서 이런 방불한 평가는 일부의 실학파 학자들을 기다려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徂徠와 그 수제자로서 조선 사신들과 시를 창화했던 문인학자 太宰 春臺가 일본의 역사 사건의 문예화에 관련하고 있는 작품을 함께 논의해서 한·일 문학의 비교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한국문학이 낳은 대표적 국민문학 작품 하나를 든다면 아마도 『춘향전』을 골라서 좋을 것인데, 일본문학사에서 비슷한 시대에 이에 필적할 작품으로 흔히 드는 것이 『忠臣藏』이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꼭 300년 전인 1701년에 江戸의 德川장군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코[赤穂]城主 아사노[淺野内匠頭長矩]가 칙사 접대의 구실을 맡아 江戸城 안에 가서 장군의 측근으로 의전담당을 맡은 기라[吉良上野介義央]를 죽였다. 이런 사건에 적당한 꾸밈을 더하여 연극으로 인형극인 조부리로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 작품의 대단원은 주군의 원수를 갚고 그에 대한 벌로 자결 명령을 받은 아코 성주의 부하 47명이 다함께 할복 자결했다는 忠義의 주제에 집중되어

27) 『長門戊辰問樞』(1748).

있다. 이런 사건이 전설화되면서 1748년에 만들어져 초연된 인형극 「假名手本忠臣藏」은 최고의 작품이어서 관객이 적어진 극장은 이 작품을 상연함으로써 소생한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한국에서도 영화의 새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춘향전』으로 승부를 건다²⁸⁾는 신화와 비교할 만하다.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 주목되는 것이 이 <아코 로시(赤穂浪士)>의 사건에 대해서 당대의 유학자들의 의견이 뚜렷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古文辭學의 荻生徂徠와 그 제자인 太宰春臺 등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법을 어겼다며 떠돌이 무사를 비판했다. 특히 太宰는 「四十六士論」을 쓰기도 했다. 반면 막부의 大學頭였던 林信篤, 장군 德川吉宗의 侍講이었던 室鳩巢와 古義學派의 유학자인 伊東東涯 등은 목숨을 바쳐 주인의 적을 친 충의를 높이 평가하며 그들을 옹호했다. 세간의 여론 또한 찬반으로 엇갈렸으나²⁹⁾ 대중의 인기는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떠돌이 무사편에 있었던 듯, 치카마츠의 『고반 太平記』(1706)를 비롯한 무수한 연극, 인형 조투리, 가부키 등으로 오늘날 같은 전승의 역사를 이어왔다.

지난 달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역사에서 문예로>라는 분과의 주제로 제출된 『忠臣藏』 논의는 역사와 문예에 관련되고, 나아가서는 영화사로 이어지는 초영역적 연구의 좋은 사례라고 할만하다. 이런 관심은 비교문학 비교문화론의 관점에서 금세 한국의 대표적 고전 작품인 『春香傳』과의 비교 연구가 상정되었고, 또 몇 차례 시도된 바 있었다.³⁰⁾ 발표자도 지난 학기의 학부 수업과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춘향전』을 다루었는데, 수십 종에 이르는 각종 이본 텍스트들의 탐색에서부터 연구사와 주제론, 인물의 성격, 현대문학에서 再話된 괴러더 소설 춘향전과 춘향 시집들, 남북한에서 나온 각종 영화와 연극·오페라, 그네의 풍속사, 그리고 현지답사에 이르기까지 가위 <춘향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의 문화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계획

28) 백문임,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제보학』, 책세상, 2001.

29) 桑田忠親, 『赤穂浪士史談』, 潮出版社, 1981, 96쪽~101쪽. 그러나 비관론자였던 荻生徂徠도 결론적으로는 무사들의 활복에 동의했다고 한다.

30) 작가 韋水山씨의 『隣りの日本人(이웃의 일본인)』(徳間書店, 1995), 155~156쪽에서 비교가 시도된 바 있고, 본격적 논의로 李御寧, 「春香傳과 忠臣藏을 통해서 본 한일문화의 비교-怨과 恨의 문화기호론적 해독」, 『翰林日本學研究』 제1집, 한림대학 일본학연구소, 1995, 80~107쪽.

이었다. 『忠臣藏』과 비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비교의 가능성은 언급한 바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문학 쪽에서 『忠臣藏』를 이런 방식으로 살펴 춘향전과 비교하는 관심에까지 이른다면 흥미롭고 유익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문예적 변천과 아코 무사의 역사사건을 취제한 『忠臣藏』의 문예화를 말했는데, 『春香傳』의 경우 그 반대로 <예술의 역사문화화>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춘향전의 경우 주인공 춘향의 실존 인물설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고, 실존 인물 여부 논쟁이 연세대 국문과에서는 대를 물려가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積層文學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설화에서 판소리로 소설로 발전한 『춘향전』도 이 실존 인물설과 관련한 <成以性 창작설>의 등장, 남원에서 해마다 행해지는 春香祭 등 여러 예에서 보듯 작중 인물 춘향의 역사화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홍길동 고향 찾기 법정 다름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예의 역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홍길동의 경우에는 洪吉同이란 역사인물의 존재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洪吉同傳』에서는 <역사에서 문예로>와 <문예에서 역사로>라는 두 방향의 문화현상이 모두 일어난 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기는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체험의 역사화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본 문학에서도 어느 문학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화현상이며, 이런 여러 시각에서 다방면적 연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편 이들 두 나라에서 이 대표적 두 작품의 인기를 끊임없이 떠받치고 있고 그 인기를 보증하고 있는 가치체계는 무엇인가? 『忠臣藏』의 경우, 연구자들은 이것이 조닌 [町人] 적 가치체계, 곧 사이카쿠(井原西確)적, 치카마츠(近松門左衛門)적인 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大石이 나와서 “사람이 있는 중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조닌 중에도 있으면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란 “한 나라의 정치를 맡겨도 아깝지 않은 기량”이라고 했다.(제10단) 이것은 조닌 관객이 듣고 싶어 했을 대사임에 틀림없고, 혹은 이것은 “조닌이 조닌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해 하지않았던 石田梅巖(1685-1744)³¹⁾과 江戸心學의 정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³²⁾ 그러나

31) 石門心學의 개조로, 先天良心說에 바탕한 심학으로 서민을 교화함. 神·儒·佛 삼교를 융합해서 그 교지를 쉬운 말과 통속의 비유로 설명한 서민교육, 수련을

『忠臣藏』의 인기를 떠받치고 있던 이유는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조년적 가치 체계가 무너진 明治 이후 오늘날까지도 이 인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47무사가 들어내는 <충의>라는 '주제'에 있지 않고, 47무사가 단결한 '행동'에 있다고 한다.³³⁾ 이 작품의 전개에서 인물들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47 무사들은 자기들의 행동에 한 마디도 변명하지 않는다. 행동에 대한 죄의 유무를 놓고 논쟁적이거나 사변적인 언어는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을 묻지 않고 단결하는 구조, 이런 일본 사회의 구조를 훌륭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일본적 생명력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에 설득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춘향전』은 논쟁적이며, 그 기호들은 감정이나 생각을 뚜렷이 드러내는 開示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식도 모두 말로 풀어낸다. 이어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사법적 언어의 모방이며, 재판정에 선 춘향의 말하기는 재판장과 같은 말하기이다. <십장가> 하나를 보기로 들더라도 이 노래는 폭력[武力]의 매를 노랫말로 바꾸어 풀어내며, 이 말은 바로 재판장에서 하는 말하기라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춘향전』의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이야말로 <역사에서 문예로> 경계를 넘는 문화연구의 교과서라 할 만하고, 문화연구의 중요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다.

앞에서 『忠臣藏』이 <역사에서 문예로>, 『춘향전』이 <문예에서 역사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두 작품의 비교문학·비교문화적 연구는 여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두 작품들이 각각 문학 작품에서 <忠臣藏 문화현상> 혹은 <춘향傳 문화현상>으로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 혹은 가치체계를 민중 정서와 祝祭性, 혹은 제의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⁴⁾ 이 두 가지 성격은 크게 보자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문학이나 문화의 수용층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고, 작품들의 생명력에도 밀접하

위해서는 靜坐 등이 증시되고, 사회교화에는 道話를 사용함. 65국 149개의 講會를 갖기도 함.

32) 加藤周一 저, 김태준·노영희 역, 『日本文學史序說 2』, 시사일본어사, 1996, 166쪽.

33) 加藤周一, 앞의 책. 참조.

34) 참고: 「남원고사」의 삼입문에 양식과 그 민중적 성격,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참조.

게 이어져 있는 개념이다. 『忠臣藏』의 인기를 보증하고 있었던 것은 복수극이라는 요소에 대한 긍정이나 혹은 47무사의 단결된 행동이란 주제적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민중적 정서의 ‘代價行爲’가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³⁵⁾ 혹은 이 작품의 인기를 끌어온 가치체계로 토속신앙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 토속신앙은 그 바탕을 불교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怨恨’을 푸는 일본적 방식으로 ‘우치이리(討入)’는 고대로부터 민중심리로 존재하는 御靈信仰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忠孝’라는 무사계급의 윤리는 이에 비하면 표층적 주제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춘향전』에서도 사랑의 완성이나 ‘烈’이라는 주제적 측면보다도 춘향의 승리가 주는 대상심리가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쏟아내는 논쟁적 말들에서 독자는 축제의 신바람을 체험하고, 당연히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로 결말은 축제의 마당이 된다. 『忠臣藏』에서도 조년들이 강자에게서 희생된 약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대상행위를 통해서 축제성을 지닌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비로소 문화의 토양을 달리하는 타문화 현상 사이에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넘어서고, 민족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가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5. 마무리

해외문화 접촉은 異文化 접촉 혹은 복수문화에 걸친 문화체험을 뜻한다. 이때 좁게는 두 문화의 접촉에서 복수문화와 異文明的의 접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우와 형태의 문화체험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이문화 접촉에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작품이 있고, 한 나라 가운데 소수자, 혹은 주변적 존재였던 사람이 후대에는 대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문화체험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시대는 물론,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더 넓고 깊은 이문화 접촉을 국민적 과제로 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한국학 전공자들이 한국학 속에 갇혀 있을 수 없게 하는 학제적 국제적 요구에 맞

35) 이 대목은 앞의 이어령 교수의 논문에 대한 작가 李恢成씨의 토론에서 시사된 바 있다.

닥뜨리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를 떠받쳐 온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복수의 문화, 문명권의 문화를 공유했던 중세적 보편주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세기적 변화에 직면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한 우리 한국학이 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과제와 함께, 이 보편주의적 지양이란 명제가 학문의 중세주의로 도피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윤리적 고뇌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학문이 그 사명을 포기하고 현실을 따라잡기도 버거운 현실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고뇌를 말하는 것이며, 안정적 연구의 장래가 어두운 학문의 후속세대에 대하여서도 기득권 세대는 당당하지 못하다. 발표자는 한국문학의 일본 체험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한·일 문학의 관련성, 문학과 역사, 문학과 사상사, 문학에서 문화로 경계를 넘는 연구의 가능성들을 점검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경계를 넘는 영역의 확충을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론이 갖는 뜻에 대한 반성적 통찰이 필요하고,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연구자의 안목이 요구된다. 이점이 중요하다.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최근에 열린 한국비교문학회 학술 세미나에서는 주로 외국문학 전공 비교문학자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가 바로 '문학연구'여야 하며, 이 문학연구의 중심에 한국문학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것은 한국문학 연구가 모든 문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학문, '문학(들)의 연구'여야 하고, 한국 문학연구가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쫓아지고 있다는 새로운 자각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문학을 향한 이 논의는 한국문학이 이런 중대한 자기 정체성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문학의 경계를 넘어 <문학연구>로 통합학문으로 나아갈 것을 안팎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새삼 다짐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문학의 일본체험이란 주제도 이런 시각에서 새로운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ncounter with the Japanese in Korean Literature

Kim, Tae-Joon

Korean interests and experiences on Japanese have been made through the historical accidents in the form of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and the typical model has been specially established throughout the seven years of Imjin waeran(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Koran-Japanese relationship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period, from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o the late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about Korea in Japanese historical text, has been continually made into the Korean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in Korean Literature.

And, in the records of Choson embassy to Japan(in the 17-19th century), the interests on the Mt. Kumkang and the national travels are growing through the controversies on the Kumkangsan(金剛山) and Fuji Mt.(富士山), and the Confucious. And I think that the struggles on the bothe countries, in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controversies on History of the Old Age and etc., are continually linked into the late distorted historical accounts.

This korean encounters with the Japanese could be made the studies of the comparative Literature between Koran-Japanese to expend into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both cultures and thoughts expended,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literary studies toward the united studies.